

시 정 연 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종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7기 새로운 출발을 맞이할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완도군정을 맡겨 주신지도 벌써 3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완도 발전과 군민 행복지수 향상을 늘 생각 하면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더 가까이서 듣고 멀리 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를 실현하기 위해 쉬지 않고 뛰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와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군정을 신뢰하고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못을 바로 잡고 부족함을 채워 주신 박종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군정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완도의 가치와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킴은 물론 지역발전의 새 지평을 연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봄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동안 설군 이래 가장 많은 93만 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2004년 해신 신드롬을 능가 하는 해박 신드롬을 연출했습니다.

산업형 비즈니스 박람회의 이미지에 걸맞게 2,332억 원에 달하는 경제파급효과와 2,156명의 고용창출, 그리고 13개국 5,230만 불의 수출계약과 37개국 2,900만 불의 수출 상담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며, 세계 수산시장 주도권 선점과 함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견인하는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군민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하나 된 모습은 성공 개최의 밑알이 됐습니다.

‘고향 방문의 해’를 선포하며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전국 30만 향우들의 고향사랑 또한 박람회 성공 개최의 큰 힘이 됐습니다.

완도군민과 30만 향우들의 저력은 위대했습니다.

범군민 지원협의회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전 공직자가 힘을 합쳐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일수록 더욱 뚝뚝 뭉치는 결집력과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괄목할 만한 성과로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미래 신성장산업인 해양치유산업, 즉 해양헬스케어 산업의 선도 지자체로 우리 완도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낸 일입니다.

미래 완도 100년을 내다보며 완도만의 다양한 해양치유 자원을 의료·관광·바이오산업과 융·복합한 전략산업으로 준비해 왔기에, 미래 먹거리산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번 선정은 가장 의미 있는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근해조업 선단의 완도항 유치 노력에 집중한 결과, 올해에만 1,171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등 지난 2014년 이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개봉관 영화를 지역에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조성한 작은영화관은 지난 9월 첫 개관 이후 2개월 만에 1만 명이 관람하면서,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 해소와 관광 시너지 효과로도 이어져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향후 국가지원 속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습니다.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은 금년에 청결·안전분야 으뜸해수욕장과 전국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2019년 국내 첫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전망을 밝게 해주는 명품해수욕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은 우리나라 봄·가을 대표축제로 떠올랐고, 올해 새롭게 개편해 선보인 토요일 싱싱콘서트는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축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브랜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 사업**에 도내 최다인 3개소가 선정됐고, 랜드마크 **완도타워**는 최고의 야간전망을 즐길 수 있는 **전국 3대 전망타워**로 뽑히면서 5백만 관광객시대 실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 열린 **장보고한상 어워드**는 재외 한상(韓商)들에게 주어지는 **최고 명예로운 상**으로 떠오르며, 지금까지 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잃어 버렸던 **상왕산**과 **상왕봉**은 지역단체와 군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옛 이름을 찾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전복양식 산업 육성을 위해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해조류 양식어업의 생산 확대에 주력해 온 결과 **황금바다 프로젝트**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완도 명품 광어**는 백신 공급 이후 타 지역과의 차별성과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효자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은 **친환경 메카**로 경쟁력을 갖추며 확고한 정착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이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브랜드 또한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에 선정되며 소비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맞춤형 서민정책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은 우선 1단계로 **광주~강진 구간**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노화~구도간 소안1교 준공에 이어 **완도읍**을 중심으로 4개 교량과 연결된 **신지~고금간 장보고대교**가 정식 개통함에 따라 동부권 주민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군민 하나되기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길권역과 **완도 망석지구**는 올해 각각 거점 개발사업과 마을단위 특화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3년간 120억 원을 지원받게 됐고, 3년 연속 선정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화권역 거점 보건지소 설치로 취약한 섬 지역의 응급 의료시스템이 개선됐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을 충실히 수행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군은 중앙부처 등의 평가에서 **19개 분야 수상**과 함께 **2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28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 뒤에는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우리군의 근간산업인 **전북산업**이 국내경기 침체와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급격한 수출 감소,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한 전북의 대량 폐사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AI와 쌀값 하락으로 **농어촌의 시름**이 깊어지고, 군민들의 **체감경기도**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난봄부터 시작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수개월째 제한급수**로 식수난과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귀농·귀어 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새 정부 정책들이 본격 시행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국중심 보호무역 강화와 금리 인상,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또한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포항 지진, AI 여파로 **국가경제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고, **경제성장도 3% 대로 전망**하고 있어 국내 내수경기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란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앞 다투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모든 분야에 **혁명적 수준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도 100년 대계의 초석이 될 해양헬스케어 산업은 잘 사는 완도를 담보할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저와 900여 공직자는 ‘완도 미래 발전의 희망이 되는 첫 해’를 맞아 비장한 각오로 흔들림 없는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끌 7대 **군정 핵심과제**를 추진하는데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더욱 활기차고 생산적인 군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완도**’, ‘**미래 먹거리 희망이 있는 완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맞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튼튼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양식어장 청년근로자 고용 급여 지원, 만 39세 미만 양식 전공 졸업자 중 양식어업 신규 창업자에게 사업비와 영어 정착자금을 지원해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인 행정에서 부터 **기간제 근로자 135명**을 내년 초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해 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파급효과가 큰 **근해 조업선단의 완도항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입항 편의제공과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분양에 들어 갈 완도 해양생물 농공단지 **특화단지 기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완도·죽청 농공단지와 **집적화**를 이루겠습니다.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개관**과 **우·오수관 정비**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00메가와트급 완도금일 해상풍력발전의 본격적인 투자 개발을 통해 정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완도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이자 **밑거름**입니다. 박람회 이후에도 4개국 131억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이 성사될 만큼 완도 특산품의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해외 현지 마켓에 완도전용 판매코너를 개설하고, 장보고 한상 어워드 수상자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해외시장을 더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직거래 장터와 Day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완도군이숍은 전시 홍보관 기능의 ‘상품 연동 쇼핑몰 시스템’으로 변경 운영하겠습니다.

장보고대교 개통은 완도 동부권을 중심으로 전남~경남~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권 관광루트 촉매제인 만큼, 전 분야에서 다양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황금바다 프로젝트를 더욱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고, 후속대책들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전북 어장환경 개선과 우량종자 개발,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스피루리나 배양 상용화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의 전북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완도항내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조성 사업비 25억 원의 국비 확보로 해외 활전복 냉동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출전략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백신공급 확대로 완도 명품광어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양식시설을 더욱 현대화해 어류 산업의 안정화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완도 전통 지주식 김 양식어업이 최근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로 지정돼, 우리군은 국내 최초로 농업과 어업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어업 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통해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김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완도 김의 옛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품종 해조류 우량종자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차기 해조류박람회 개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동부권 지역에서 포획되는 각종 어류의 완도수협 위판장 경매 유인을 위한 연안어선 미끼 지원 사업을 추진해 타 지역으로의 어류 및 수산물 유출을 단절시키겠습니다.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 경영을 위해 내년부터는 군에서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향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해양헬스케어 산업은 내년도 사업계획 용역과 2019년 시범단지 조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황금바다 프로젝트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정착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완도자연그대로 농법의 완전 정착을 통해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6차 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농협 RPC 현대화사업 완료로 미품벼 생산에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고품질 생산단지를 200ha로 확대 조성하고, 쌀 포장디자인도 개선해 완도쌀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한미 FTA 등 다자간 무역협상의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활로 모색과 생산비 절감 방안 등 능동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청산도 슬로푸드 명품화 사업과 약산 흑염소 명품화 사업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융·복합화가 가능한 6차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방역태세를 확립해 가축 전염병이 없는 청정완도 이미지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녹색공간을 연출하고, 후대에 자원이 될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도 적극 동참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매력 있는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해 5백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최근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감성 관광 마케팅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생일도, 소안도, 여서도 등 3년 연속으로 선정된 가고 싶은 섬을 관광명소로 가꾸겠습니다.

슬로시티 재인증 범위 확대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등 완도 전 지역을 하나로 묶어 우리 모두가 가꾸고 보전해야 할 ‘환경자산의 보물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도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시범사업을 운영해 국내 최초 블루플래그 인증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이를 해양헬스케어 산업의 사업화 추진 로드맵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신지 해수욕장에 워터파크형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금일 해수욕장에는 향후 4년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캠핑장과 야자수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길도에 어부사시사 명상길 탐방로를 복원하고,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부용동 원림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담긴 가리포진에 대해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은 대통령 공약인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왕묘 재건과 관왕묘비의 전남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에 대비한 중국 관광객 유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청해진 시대와 연관성이 입증된 완도 법화사지는 2차 정밀 발굴을 통해 장보고 역사·관광벨트를 완성하고, 장보고 글로벌 마인드 계승을 위한 창작 판소리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영장형 학교 다목적체육관과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사업 등 체육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체육인 교육·훈련센터 완도 유치를 위한 중장기 플랜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인구감소 대응 및 사람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단계 진입으로 인구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인구늘리기 민간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무엇보다도 합계출산율 2.0 지키기를 목표로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 정책을 더욱 발굴하겠습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을 완도대성병원에 건립해 출산과 양육여건을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산후조리비 감면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에 따라 내년 하반기까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기관 간 원격진료 등 협진사업을 확대해 교통이 불편한 외딴섬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5세 이하 아이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단체 육성을 통해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의 지원 역할을 조화롭게 분담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실현하고,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개발 사업을 더 확충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금일~약산 연륙교 가설공사는 지역 균형발전 논리개발을 통해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완도읍 진입구간 선형불량 도로와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대해 적극 대응해 교통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낙후지역에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완도읍을 중심으로 공모 신청해 도시경제 기능회복과 노후 주거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안 최고의 시설로 거듭난 완도항 여객터미널 운영을 활성화해 항만 물류산업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2월부터 완도어업정보통신국을 착공해 어선의 안전조업과 해양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난 해소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와 독높이기 등 지역여건에 맞는 근본대책을 마련해 지속되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완도소방서 신설 부지매입과 소방인력·장비의 차질 없는 보강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에 따른 단계별 **대응요령 매뉴얼**을 구체화시켜 전파하고, **스마트 마을행정방송 시스템** 시범 운영과 **통합관제센터 시설물 고도화** 구축사업을 통해 더욱 **안전한 완도**를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소통·화합 행정으로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통과 화합**을 군정의 최우선 기조로 삼아 **따뜻한 완도공동체** 형성에 앞장서며, **열린 공직사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수시로 **이동군수실**을 열어 군민과의 소통 폭과 참여 기회를 넓혀 가겠습니다.

군민중심의 친절봉사 행정을 바탕으로 올바른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렴과 부정부패 척결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추진하고, 공직자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 **청렴완도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역점시책들을 뒷받침 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천 594억 7천 1백만 원**, **특별회계 109억 4천 3백만 원**으로 총 **3천 704억 1천 4백만 원**이며, 올해 당초예산 3천 421억 3천 2백만 원 보다 약 **8.3%**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 여건은 현 정부의 강력한 재정분권 정책 추진과 지방세의 적극적인 세입확충으로 **세입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용재원은 빠듯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세출예산은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들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심하며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전 공직자는 완도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우리 완도가 나아갈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우리군 미래 사업으로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해외시장 개척, 해양헬스케어 산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군정이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완도발전을 위해 군민의 삶을 챙기고, 지역의 민생을 살피면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긴 안목으로 완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새로운 자세로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며, 군민들의 뜻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14.

완도군수 신우철